



마음을, 세상을, 자연을
맑고 향기롭게

Malgo Hyanggiropge

only practice virtue
can only make our hearts
purified and emptied.

12 2025

맑음은 개인의 청정을,
향기로움은
그 청정의 사회적
메아리를 뜻합니다.
- 法頂



진흙 속에서도 티 한 점 없이
맑고 향기로운 꽃을 피워내는 연꽃은
시민모임 「맑고 향기롭게」의 정신을 상징합니다.

2025 / 12

시절 인연	02	불교佛教에서 본 악惡의 문제 – 1
법정 스님 따라 하기	07	어리석은 사람과 짹하지 말라
법정 스님 편지	10	이곳 날씨는 우리나라의 초가을 날씨다
선재동자와 함께 떠나는 선지식 여행	12	수호일체성증장 ^{守護一切城增長} 주야신
법정 스님 향기	16	꽃향기처럼 풀어내다 '글쓰기'
다시 만나는 법정스님	18	겨울 자작나무
맑고 향기롭게 사는 사람들	20	맑고 향기롭게와 길상사 소식

마음을 맑고 향기롭게

- 욕심을 줄이고 만족하며 삽시다
- 화내지 말고 웃으며 삽시다
- 나 혼자만 생각 말고 더불어 삽시다.

세상을 맑고 향기롭게

- 나누어 주며 삽시다
- 양보하며 삽시다
- 남을 칭찬하며 삽시다.

자연을 맑고 향기롭게

- 우리 것을 아끼고 사랑합니다
- 꽃 한 포기, 나무 한 그루 가꾸며 삽시다
- 덜 쓰고 덜 버립시다.

2025년 12월 1일 발행 / 통권 370호 / 등록일 1999년 6월 23일 / 신고번호 성북라00004호

발행 편집인 덕조 / 기획 편집 홍정근

발행처 (사)맑고 향기롭게 : 서울시 성북구 선잠로 5길 68 길상사 내

전화 (02)741-4696 팩스 741-4698

디자인 인쇄 디자인나경

홈페이지 <http://www.clean94.or.kr>

대표메일 clean94@hanmail.net

길상사는 맑고 향기롭게 살아가기 운동을 실천하고 전파하기 위해 법정 스님에 의해 창건된 사찰입니다.

전화 (02)3672-5945 팩스 (02)3672-5947

홈페이지 <http://www.gilsangsa.or.kr>

대표메일 kilsangsa@hanmail.net

불교佛教에서 본 악惡의 문제 – 1

1.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원천적으로 죄를 짓고 있다.

마치 과일 속에 씨가 들어 있는 것처럼 본래부터 죄를 잉태하고 있다는 것. 이것이 기독교적인 입장에서 말하는 원죄설이다. 이와 같은 전통을 이어받아 칸트 같은 사람도 그의 종교철학의 근본 원리를 근본악에 두었던 모양이다. 사람은 선협적으로 악을 가진 존재라는 것. 이런 주장을 보다 쉬운 말로 풀이하자면, 우리들의 귀여운 아기가 태어날 때부터 죄를 짚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방긋방긋 웃고 있는 철없는 그 어린아이가 귀엽게 재롱을 떨고 있는 티 없이 천진한 아기가 바로 고약한 죄의 씨를 지니고 있다는 말이다. 그러니까 하루에도 수십만 명씩 이 지구상에는 죄인이 태어나고 있는 셈이다. 어디 어린아이들뿐인가. 45억인가 하는 현존하는 커버린 사람들도 모두가 한결같이 죄인들이다. 권력을 한 몸에 지니고 다스리는 자나 그 다스림을 받는 자나, 부자건 가난한 자건 감옥에 들어가 있건 밖에 있건 간에 우리들은 모두가 똑같은 죄인인 셈이다. 이런 글을 쓰고 있는 필자도 죄인이고, 미안한 말이지만 이 글을 편집하는 편집자도 죄인이고, 다시 한번 실례될 말이지만 인쇄소에서 문선文選하는 사람도, 식자植字하는 사람도, 인쇄하고 교정하고 제책하는 사람도, 또는 책을 파는 사람도 돈을 주고 사서 읽는 사람도 예외없이 죄인들이라는 말이다. 이것이 기독교적인 입장

에서 주장하는 원죄설原罪說이다.

그러기 때문에 이 악을, 근본악을 털어버리고 선을 추구하고자 하는 데에 논리가 갖는 입장이 있고 종교가 지향하는 길이 열리게 된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불교의 입장은 인간의 심성은 본래부터 청정하다(심성본정心性本淨, 본성청정本性清淨)는 것이다. 초기경전(남전 상응부:南傳 相應部 제1권)에 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자주 나온다.

“비구(수행승)들이여, 이 마음은 본래부터 아주 청정하다.

그런데 그때그때(경우에 따라) 때가 묻어 오염된 것이다.”

여기에서는 인간의 원죄 같은 것은 전혀 문제 삼지 않는다. 풍진 세상을 살아가다 보니 경우에 따라 혹은 사람에 따라 얼마쯤의 때가 묻게 되었을 뿐이다. 그러므로 죄인의 자격으로 끝없이 누워 치고 통곡해야 하는 속죄보다도 이 오염된 것을 어떻게 씻어버리고 본래의 청정淸淨으로 돌아갈 것인가를 문제 삼을 따름이다.

2. 오염을 정화시키는 방법을 말하기에 앞서, 불교에서는 어떤 것을 악이라 하고 어떤 것을 가리켜 선이라 하는 가부터 이야기하는 것이 순서일 것 같다.

선악善惡의 구별이 말은 쉽지만,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히면 그 기준이 애매하고 모호할 때가 없지 않다. 하나의 행위가 어떤 점에서 보면 선인데, 다른 점에서 보면 악일 경우가 있다. 낱낱의 예를 들지 않더라도 우리들의 일상적인 체험을 통해 늘 겪고 있는 현실이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초기 불교에서는 좀 막연한 소리지만 이렇게 말하고 있다. 즉 「사람을 이롭게 하는 것은 선이고 사람을

해치는 것은 악이다.」 또 어떤 경전에서는 의롭고, 의롭지 않은 것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정의에 합당한 것은 선이고, 불의는 악이라고 단정한다. 여기서 말하는 의로움(attha)은 이익이라는 뜻을 함께 가지고 있으므로 누구에게나 이익이 되는 것이 선이라는 뜻일 수도 있다. 그리고 또 다른 표현으로는 이법(理法:dhamma, 진리)에 따르는 것이 곧 의로운 일이고 이로운 일이라고도 한다. 그래서 미덕은 번영의 문이고 악덕은 타락의 문이라고 생각하게 된다.

“번영하는 사람을 알아보기는 쉽다. 파멸하는 사람을 알아보기 도 어렵지 않다. 진리를 사랑하는 사람은 번영하고 진리를 싫어 하는 사람은 파멸한다.”(숏타니파아타 92)

“나쁜 사람들을 가까이하고, 착한 사람들을 멀리하며, 나쁜 사람이 하는 일을 좋아하면 이것은 파멸의 문이다.”(숏타니파아타 94)

악이란 더 밀할 것도 없이 모든 악행惡行을 가리킨 말이다. 공동체에서 정해진 생활규범, 즉 계율戒律을 깨뜨리는 것을 비롯하여 일반의 세간적인 악한 행위를 뜻한 말이다. 그러나 불교에서 말하고 있는 악(이를 흔히 불선不善이라고도 표현한다)은 그 자체를 문제 삼기보다는 악행이 나올 수 있는 근원을 문제 삼는다. 악행의 근원은 어디에 있고, 어째서 그와 같은 악행이 발생하게 되었는가를 추구한다. 그래서 악행을 표면에서가 아니라 그 근원부터 제거하려는 데에 최대의 관심이 있는 것이다.

악행의 근원을 우리들 인간의 사악한 마음(앞에서 지적한 오염된 마음)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그러므로 이 사악한 마음을 문제 삼지 않을 수 없다.

유명한 게송偈頌으로 이를 칠불통성계七佛通誠偈라고 하는데,

초기경전과 대승경전에 자주 인용된 시다.

“**악한 일 하지 말고
선한 일 두루 행해
마음을 깨끗이 하라
이것이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이를 한문으로는,

「諸惡莫作 衆善奉行 自淨其意 是諸佛教」(제악마작 중선봉행 자정기의 시제불교)라고 표현한다.

「스스로 그 마음을 깨끗이 하라」(자정기의自淨其意)는 것이 모든 깨달은 사람의 가르침이라고 했듯이, 인간 자신의 내면을 응시하여 그 마음을 청정하게 가질 것을 강조한 교훈이다. 인간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갖가지 악행은 한 생각 잘못 일으킨 그 오염된 마음에서 일어나기 때문이다. 이것을 번뇌라고 한다. 그러나 까 모든 악행은 이 번뇌에 뿌리를 내리고 있다는 것. 이렇듯 개인의 악행이 얹히고 설켜 사회적으로 확산되다 보면 구조적인 모순(악행)을 가져오게 되어 악행은 가속화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3. 불교에서는 흔히 백팔 번뇌니 팔만 사천 번뇌를 말한다. 그것은 많은 수를 가리킨 고대 인도 사람들의 표현 방식이다. 그 가운데서 가장 근원적인 번뇌로는 탐욕(탐:貪)과 증오(진:瞋)와 무지(치:痴)다. 모든 불선의 뿌리는 무엇인가 하면 많은 경전들이 한결같이 탐욕과 증오와 무지라고 들고 있다. 이 셋을 예전부터 삼독번뇌三毒煩惱 혹은 삼화三火라고 하여 수행의 길에서 가장 경계해야 할 것으로 여기어 왔다.

탐욕을 혹은 갈애渴愛라고도 하는데, 이것이 불선不善의 뿌리인

것은 지나친 소유욕이고 끈질긴 집착이기 때문이다. 많은 사람들이 고루 나누어 가져야 할 것을 소수가 독점하고 있는 것은 악이라는 것이다. 왜냐하면 남에게 돌아갈 뜻을 가로채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깎어모아서 자기 것을 만들고야 말겠다는 욕망은 채워도 채워도 모자라기만 하는 갈증의 상태이다. 물질만능과 재화의 부피에 가치의 척도를 두고 있는 소유지향적인 이 시대의 우리들은 거개擧皆가 이 탐욕의 노예들이다. 좀 듣기 거북한 표현 같지만, 악의 신자들이라는 말이다. 또 증오가 불선의 뿌리인 것은 자신의 욕구불만이 남에게까지 피해를 끼치기 때문이다. 탐욕과 증오는 우리들의 욕망이 외부의 대상에 대해서 일어나는 것인데, 사랑스러운 대상에 대해서는 탐욕하고 사랑스럽지 않은 대상에 대해서는 미워하면서 화를 낸다.

또 무지(미망:迷妄)가 불선의 근원인 것은 진리에 어두워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어리석은 행위를 저지르게 된다. 이상의 탐욕과 증오와 무지 등 삼독三毒, 혹은 삼불선근三不善根을 다시 무명無明과 갈애渴愛로 요약할 수 있다. 무명은 무지無智라고 하는 지혜의 결핍을 뜻하므로 지적인 미혹을 가리키고 갈애는 욕망을 충족시키려는 정의적情意의인 미혹을 가리킨다. 그러나 이 무명과 갈애를 기독교의 원죄처럼 근본악이라고 하지 않는 것은 무명이나 갈애가 의지적인 노력에 의해 소멸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일 뿐 아니라 깨달음(개오:開悟)에 의해서 깡그리 없어지기 때문이다.

초기불교에서는 지악수선止惡修善이라고 하는 실천 수행에 있어서 무명과 갈애가 소멸될 수 있다고 이해되었다. 이런 점에서 원시불교의 입장은 윤리적인 성격이 강하다.

– 이 글은 『씨울의 소리』 1978년 6월호의 '악'에 대한 특집으로 실렸던 글이며, 3회에 걸쳐 연재됨을 알려드립니다.

2. 법정 스님 따라 하기

어리석은 사람과 짹하지 말라

부처님이 라자그리하에서 영취산에 계실 때였다.

한 비구가 있었는데, 그는 의지가 굳세고 성품이 용맹스러우며 씩씩했다. 부처님은 그를 가르치기 위해 산 너머 귀신 골짜기에 있는 나무 아래에 가서 앉게 하고, 그 자신의 들이쉬고 내쉬는 숨길을 세면서 안정을 찾도록 했다.

“숨길을 헤아리는 수식관數息觀으로 생각을 쉬고, 구하는 마음을 끊어 괴로움을 없애야 비로소 열반(모든 번뇌를 벗어난 평안의 정지)을 얻을 수 있느니라.”

비구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그 골짜기에 앉아 마음의 안정을 얻으려고 했다. 그러나 그 모습은 보이지 않지만, 골짜기에서 귀신의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그는 점점 겁이 났다. 숨길을 헤아릴 수도 없어 안정을 얻지 못했다. 두려워서 그만 돌아가려고 하다가 스스로 생각했다.

‘나는 집에 있었으면 큰 부자가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평안(열반)을 얻기 위해 집을 나와 도를 배우고 있다. 깊은 산속이 친구도 하나 없고 지나가는 사람도 없으니 외롭다. 게다가 귀신의 소리가 나를 두렵게 하는구나.’

이때 마침 부처님께서 그의 곁에 오시더니, 한 나무 밑에 앉아 물으셨다.

“너는 혼자 이곳에서 전진하면서 아무 두려움도 없었느냐?”

비구는 부끄러운 듯 고개를 숙이고 말했다.

“저는 이 골짜기에 들어와 본 일이 없습니다. 처음으로 이곳에 와 있으니 실로 무섭고 두렵습니다.”

이윽고 큰 코끼리 한 마리가 가까이 오더니 한 나무를 의지하고 앉아 고요를 즐겼다. 부처님은 그 비구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 코끼리가 어디서 왔는지 알겠느냐? 이 코끼리에게는 크고 작은 딸린 식구가 5백여 마리인데, 작은 코끼리들이 귀찮게 해서 그들을 떠나 여기로 온 것이다. 코끼리는 나무 밑에 앉아 ‘인정 어린 마음과 애욕의 감옥을 떠나니 얼마나 유쾌한가.’라고 생각한다.

이 코끼리는 짐승인데도 한적한 것을 좋아하고 즐긴다. 하물며 너는 집을 나와 세속을 여의려고 하면서, 홀로 외롭다고 친구를 찾으려고 하는가? 어리석고 어두운 친구는 도리어 손해가 많다. 홀로 있으면 맞설 이가 없고, 또 번거롭게 의논할 필요도 없다. 그러므로 차라리 홀로 도를 닦을 것이요, 어리석은 사람과 짹하지 말아야 한다.”

부처님은 다시 계송을 읊으셨다.

도를 배우는 데는 친구가 필요 없다.

착한 벗을 만나지 못했거든

차라리 홀로 선善을 닦을 것이지

어리석은 사람과 짹하지 말라

청정한 행을 스스로 즐기거니

친구를 사귀어 무엇하리

홀로 선에 머물면 근심 없으니

마치 빈 들의 코끼리 같으리라

이와 같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그 비구는 생각이 풀려 마침내 아라한이 되었다.

〈법구비유경〉 교학품

* 법정 스님 강론

수행하는 사람은 홀로 있을수록, 넉넉한 뜰을 지닐 수 있다. 마음에 꺼리는 사람들과 함께 있기보다는 외롭더라도 홀로 있는 게 얼마나 홀가분한 일인가를 겪어 본 사람다면 알 수 있을 것이다.

누가 말했던가.

홀로 있을 때의 너는 온전한 너이지만, 친구와 같이 있을 때는 절반의 너밖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또한 홀로 있을수록 함께 존재한다. 수행자는 어차피 홀로 가는 사람이니까. 고독은 보랏빛 노을이 아니라 당당한 있음이다.



향기로 전하는 마음, 위로와 공감의 답장

길상사 경내 ‘법정 스님 진영각’ 한편에는 잠시 발걸음을 멈추고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는 작은 공간이 있습니다.

그곳에는 방문객들이 법정 스님에게 마음을 전할 수 있는 방명록과 소소한 고민을 적어보낼 수 있는 ‘향기 우체통 공감 엽서’가 놓여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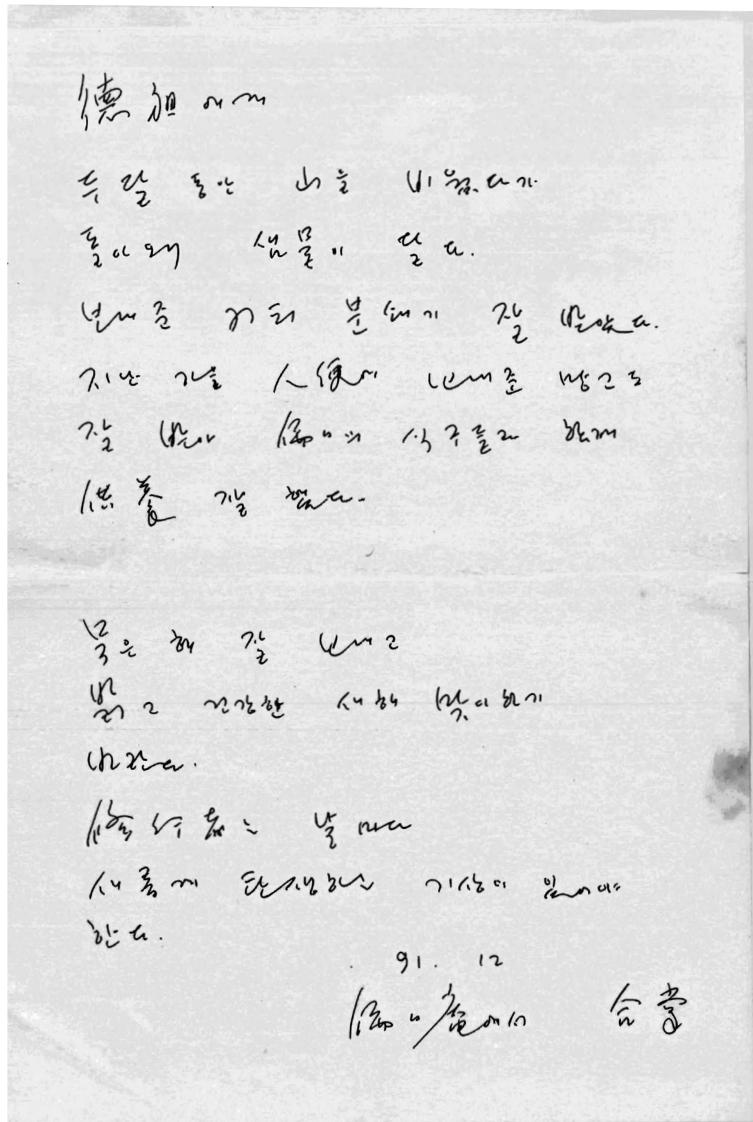
가정의 일, 직장의 고민, 혹은 아무에게도 쉽게 털어놓지 못한 마음의 짐을 엽서 한 장에 담아 두고 가면, ‘향기 우체부’ 봉사자들이 정성껏 읽고 공감의 답장을 보내드립니다. 때로는 짧은 위로의 한 문장이, 때로는 잔잔한 격려의 한 구절이 되어 큰 힘이 될 때가 있습니다.

멀리 계셔서 길상사까지 오기 어려운 분들은 우편이나 전자 우편으로도 고민을 보내주실 수 있습니다.

손 편지가 사라지는 시대에, ‘향기 우체통’이 전하는 진심의 글 한 장이 당신의 하루에 향기로운 짐표가 되길 바랍니다.

- **사연을 보내실 곳은 :** 서울 성북구 선잠로5길 68, 길상사 내 맑고 향기롭게 ‘향기 우체부’ 앞 또는 이메일 clean94@hanmail.net입니다.

3. 법정 스님 편지



덕조德祖에게

두 달 동안 산을 비웠다가
 돌아오니 샘물이 달다.
 보내준 커피 분쇄기 잘 받았다.
 지난 가을 인편人便에 보내준 망고도
 잘 받아 불일佛日의 식구들과 함께
 공양供養 잘 했다.

득은 해 잘 보내고

밝고 건강한 새해 맞이하기
 바란다.
 수행자修行者는 날마다
 새롭게 탄생하고
 기상이 있어야 한다.

91. 12

불일암佛日庵에서 합장合掌

* 이 편지는 법정 스님이 1991년 12월 17일 덕조 스님에게 보내신 것입니다.

4. 선재동자와 함께 떠나는 선지식 여행

수호일체성증장 守護一切城增長 주야신

선재동자는 적정음해 주야신의 가르침을 따라 그 법문을 사유 관찰하면서 낱낱 구절을 하나도 잊지 않았다. 한량없는 깊은 마음과 법의 성질과 모든 방편과 신통과 지혜를 기억하고 생각하기를 쉬지 않으니, 그 마음이 광대하고 중득해 안주하면서 모든 성을 수호하는 주야신의 처소로 나아갔다.

그 주야신은 일체보광마니왕 사자좌에 앉아 있었는데, 수없이 많은 밤을 주관하는 신들이 그를 에워싸고 있었다. 선재는 그를 보자 환희심이 일어나 그의 발에 엎드려 절하고 합장하고 서서 말했다.

“성자시여, 저는 이미 위없는 보리심을 발했으나 보살이 보살 행을 닦을 때 어떻게 해야 중생을 이롭게 하며, 어떻게 해야 더 없는 거둠으로 중생을 거두어 주며, 어떻게 해야 부처님들의 가르침을 따르고, 또 어떻게 해야 법왕의 자리에 가까이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자비를 드리우사 저에게 말씀해 주소서.”

주야신이 선재에게 말했다.

“선남자여, 그대가 모든 중생을 구호하기 위해 보살의 수행하는 문을 묻는구나. 그리고 모든 부처님 세계를 맑게 장엄하기 위해, 모든 여래에게 공양하기 위해, 모든 겁에 머물면서 중생을 구하기 위해, 모든 불종성佛種性을 수호하기 위해, 시방에 두루 들어가 모든 행을 닦기 위해, 법문의 바다에 널리 들어가

기 위해, 평등한 마음으로 모든 것에 두루하기 위해, 부처님의 법륜을 모두 받기 위해, 중생의 마음에 좋아함을 따라 법비를 내리기 위해, 보살의 수행하는 문을 묻는구나.

나는 보살의 심히 깊고 자재한 묘음解脫을 얻었고, 큰 법사가 되어 거리낌이 없으니, 부처님의 법장法藏을 잘 열어 보이기 때문이다. 큰 서원과 큰 자비의 힘을 갖추어 중생들에게 보리심에 머물게 하며, 중생을 이롭게 하는 온갖 일을 해 선근 쌓기를 쉬지 않게 하며, 중생을 지도하는 스승이 되어 중생들에게 일체지의 도에 머물게 하며, 세간의 청정한 법의 해가 되어 세간을 두루 비추어 선근을 내게 하며, 세간에 마음이 평등해 중생들에게 착한 법을 늘리게 하며, 모든 경계에 마음이 청정해 온갖 착하지 못한 업을 없애며, 중생을 이롭게 하려는 원을 세워 몸이 항상 모든 국토에 나타나며, 온갖 본사本事의 인연을 나타내 중생들을 선행에 머물게 하며, 항상 선지식을 섬겨 중생들을 부처님의 가르침에 머물게 한다.

불자여, 내가 이런 법으로 중생에게 베푸는 것은 선한 법을 내어 일체지를 구하게 하고, 마음이 금강나라연신金剛那羅延身처럼 견고해 부처님의 힘과 악마의 힘을 잘 관찰하고, 항상 선지식을 가까이하고 업과 번뇌의 산을 깨뜨리며, 일체지를 돋는 법을 모아 마음에 항상 일체지의 자리를 버리지 않게 하려고 해서다. 나는 이와 같은 청정한 법의 광명으로 모든 중생을 이롭게 해 선근과 도를 돋는 법을 쌓을 때 다음 열 가지로 법계를 관찰했다.

나는 법계가 한량없음을 아는데 그것은 광대한 지혜의 광명을 얻었기 때문이다. 또 법계가 그지없음을 아는데 모든 부처님의 지견知見을 알기 때문이며, 법계가 무한함을 아는데 모든 불국토에 들어가 부처님들을 공경 공양하기 때문이며, 법계가 가없

음을 아는데 법계 가운데서 보살행을 수행하는 것을 보이기 때문이며, 법계가 끊임이 없음을 아는데 여래가 끊이지 않는 지혜에 들어가기 때문이다. 또 법계가 한 성질임을 아는데 여래의 한 음성을 중생이 다 알아듣기 때문이며, 법계의 성질이 청정함을 아는데 여래의 원이 모든 중생을 널리 제도함을 알기 때문이며, 법계가 중생에게 두루함을 아는데 보현의 오묘한 행이 다 두루하기 때문이며, 법계가 한 장엄임을 아는데 보현의 오묘한 행이 두루 장엄하기 때문이며, 법계가 무너지지 않음을 아는데 일체지의 선근이 법계에 충만해서 무너지지 않기 때문이다.

이 열 가지로 법계를 관찰해 선근을 쌓고 도를 돋는 법을 마련하며, 부처님의 광대한 위덕을 알고 여래의 헤아리기 어려운 경지에 깊이 들어간다.

선남자여, 나는 여래의 무차별 법계문에 들어가 무상법無上法을 설해 중생들을 두루 거두고 미래겁이 다하도록 보현행에 머물게 한다. 나는 이 심히 깊고 자재한 묘음 해탈을 성취했으므로 생각마다 모든 해탈문을 늘게 하며, 생각마다 모든 법계에 충만하다.

선남자여, 이와 같이 지나간 수미산 미진수 여래를 내가 다 존중하고 가까이해 공양했고, 말씀하신 묘법妙法을 듣고 받아지녔으며 또 그 모든 여래께 출가해 도를 배우고 교법을 수호했다. 보살의 심히 깊고 자재한 묘음 해탈에 들어가 갖가지 방편으로 한량없는 중생을 가르쳐 성숙케 했다. 그 후부터 불찰 미진수겁에 부처님들께서 세상에 출현하실 때마다 내가 다 공양하고 그 법을 수행했었다.

나는 그때부터 생사의 무명 장야에 있는 중생들 가운데서 홀로

깨어, 중생들에게 마음의 성을 수호하고 삼계의 성을 버리게 했으며, 일체지의 무상無上 법성에 머물게 했다.

선남자여, 나는 다만 이 심히 깊고 자재한 묘음 해탈을 알아, 세상 사람들에게 희론戲論을 떠나 두 가지 말을 하지 않고 진실한 말과 청정한 말을 하게 할 뿐이다. 그러나 저 보살 마하살들은 모든 언어의 자성自性을 알아 순간순간 중생들을 자유롭게 깨닫게 한다. 여러 중생의 음성 바다에 들어가 온갖 말을 다 분명하게 하며, 법문의 바다를 밝게 보며, 법을 두루 거두는 다라니에 자재하며, 중생들의 의문에 따라 설법해 중생을 끝까지 가르친다. 중생을 널리 섭수攝受하고 보살의 위없는 업을 미묘하게 닦으며, 보살의 미세한 지혜에 깊이 들어가 보살의 법장을 잘 관찰하며, 보살들의 법을 자유롭게 말할 수 있다. 왜냐하면 법륜의 다라니를 이미 성취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일들이야 내가 어떻게 알며 그 공덕행을 말할 수 있겠는가.

선남자여, 이 부처님 모임 중에 한 주야신이 있는데, 이름이 모든 나무에 꽃을 피움[開敷一切樹華]이다. 그대는 그에게 가서 보살이 어떻게 일체지를 배우며, 어떻게 모든 중생을 편안히 해서 일체지에 머물게 하는가를 물으라.”

선재동자는 보살의 심히 깊고 자재自在한 묘음 해탈에 들어가 끝없는 삼매 바다에 들었으며, 광대한 다라니 바다에 들어가 보살의 큰 신통과 변재를 얻어 마음에 큰 환희가 일었다. 선재는 주야신의 덕을 찬탄하고 절을 올린 뒤 물러갔다.

* 수호일체성장주야신은 십지중 여섯째인 현전지現前地단계의 선지식입니다. 현전지 선지식은 일체중생의 존재는 실체가 없고 형태도 없으며 본래부터 적정한 것임을 깨달아서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단계입니다.

꽃향기처럼 풀어내다 ‘글쓰기’

스님은 글을 만년필로만 썼습니다. 오두막에는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 곳이라 설령 컴퓨터가 있어도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스님은 시력도 나빠질 것이고, 방에 ‘쇳덩어리’가 있다고 생각해 옛날 방식으로 만년필 쓰는 것을 고수했습니다. 또한 스님은 볼펜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볼펜은 생각보다 ‘빨리’ 나간다고 했습니다. 생각이 함부로 손을 따라가기에 ‘미끄럽게 흘러가는’ 볼펜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수성펜도 종이에 배어드는 질감이 잉크만 못해 그 역시 싫어했습니다. 스님은 옛날 사람들은 먹을 갈며 생각을 정리하고 한 회 한 회 붓을 놀리며 ‘책임 있는 글’을 썼는데, 요즘 사람들은 손가락이 빨라 ‘무책임한 글’을 쓴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글과 말을 믿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본 작가 가와바타 야스나리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는 자기 작품인 〈설국畫國〉을 붓으로 쓰곤 했습니다. 그만큼 한 글자 한 글자에 온 정성을 다해 글을 쓴 것입니다. 스님은 원고지에 한 칸 한 칸 글을 쓰고 있으면 마음이 편해진다고 했습니다.

만년필 펜촉도 가는 것을 선호했습니다. 그래서 F촉보다는 한층 더 가는 ‘EF’촉을 골랐습니다. 이유는 무딘 촉은 섭세한 감성을 담아내기 어렵기 때문이었습니다. 스님은 마음이 더 투명해지면 먹을 갈아 붓으로 글을 쓰고 싶다고 했습니다.

스님은 글 쓰는 도구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문방구에 들어가면 늘 황홀해지곤 했습니다. 그곳은 ‘보는 즐거움’과 ‘고르는 즐거움’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문방구류를 선물로 받을 경우가 가장 고맙고 기쁘다고 했습니다. 스님은 생각만으로 글이 써지는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마음에 드는 필기구와 종이의 형태와 질 그리고 기분이 하나가 될 때 글이 된다고 했습니다.

스님의 글쓰기는 담담하고 쉽고 정갈하고 맑았습니다. 그래서 출간하는 책마다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스테디셀러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스님이 지은 책을 가져와서 좋은 말을 써 달라고 하면 스님은 즉석에서 펜을 잡고 ‘좋은 말씀’이라고 네 글자를 써주었습니다.

책을 받아 본 사람은 “진짜 좋은 말씀이네요”하고 유쾌하게 웃었습니다. 스님은 책뿐만 아니라 지인들과 수많은 편지를 주고받았습니다. 편지도 스님의 주요 글쓰기였습니다. 편지는 ‘간결해야’한다고 하며 글씨는 ‘정중하게’ 써야 한다고 했습니다. 스님은 글을 쓸 때 마감날이 없다면 한 줄의 글도 쓰지 않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약속한 마감일이 바짝 다가서야 책상 앞에 앉아 원고지를 펼치고 만년필에 잉크를 채웠습니다. 글 쓸 주제가 결정되면, 어느 때를 가리지 않고 단번에 써 버렸습니다. 그러나 무슨 이야기를 쓸 것인지 주제가 설정되지 않으면, 공연히 뜰에 나가 서성거리거나 나무를 다듬고 손톱도 깎고 묵은 일기장을 들추기도 했습니다. 스님은 이런 것은 ‘엄마들이 아기를 낳을 시간이 임박해지면 느끼는 기분’과 비슷할 것이라 했습니다. 스님은 글을 쓸 때, 바로 오늘 아침 일어난 일이나 어제 겪은 체험으로부터 ‘이야기의 실마리’를 풀어간다고 했습니다.

* 백형찬 : 서울예술대학 교수 역임, 수필가, 맑고 향기롭게 회원

겨울 자작나무

자다가 저절로 눈이 떠진다. 어김없이 새벽 한 시에서 한 시 반 사이. 이때 내 정신은 하루 중에서도 가장 맑고 투명하다. 자연은 사람의 나이를 묻지 않는다는 데, 나이 들어간 탓인지 남들이 곤히 잠든 이런 시각에 나는 곧잘 깨어 있다.

둘레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다. 개울은 두껍게 얼어붙어 흐름의 소리도 멈추었다. 자다가 뒤척이는지 이따금 뜰에 가랑잎 구르는 소리만 바스락거릴 뿐. 이것은 적적 요요한 자연의 본래 모습이다. 창문을 열면 섬뜩한 한기와 함께 새벽하늘에 별들이 오들오들 떨고 있다. 밤을 지키는 이런 별들이 없다면 이 우주는 너무 적막하고 삭막할 것이다.

요즘 오후로는 대지팡이를 끌고 마른 숲길을 어슬렁거린다. 묵묵히 서 있는 겨울 나무들을 바라보고 더러는 거칠거칠한 줄기들을 쓰다듬으며 내 속에 고인 말들을 전한다. 겨울 나무들에게 두련두련 말을 걸고 있으면 내 가슴이 따뜻하게 차오른다. 우리 산천의 수목 중에는 단연 소나무가 으뜸이다. 노송의 훤험한 품격과 청청한 그 기상은 그 어떤 나무들하고도 비교가 되지 않는다. 그리고 이 산중에 있는 겨울 나무 중에서 정답기로는 자작나무다. 아무것도 걸치지 않은 채 알몸으로 자신을 죄다 드러내고 있는 그 모습이 믿음직한 친구를 대하는 것 같다.

내가 이 산중에 들어온 이듬해 봄 손수 심은 50여 그루의 자작

나무들은 이제 정정한 수목의 반열에 들어서 있다. 자작나무를 가까이서 대하고 있으면 내 귀에는 문득 바로크 음악이 은은히 울려오는 것 같다. 그래서 자작나무 곁을 떠나기가 아쉽다.

한 친구의 글에서 자극을 받아, 지난 가을부터 그동안 잊고 지내던 옛 가락들에 다시 귀를 기울인다. 파비오 비온디의 연주로 비발디의 협주곡들에 기대고 있노라면 내 감성에 슨 녹이 벗겨져 나가고 속풀이 한결 투명해진다. 전에는 바흐의 ‘평균율 클라비아’를 즐겨 들었는데, 요즘에는 ‘골트베르크 변주곡’을 자주 듣는다. 잠들기 전 등잔불을 끄고 어둠 속에서 듣고 있으면 그 가락이 지난 뒤틀까지도 울린다. 글렌 굴드의 피아노 연주만으로는 성에 차지 않아 안드레 쉬프의 연주로 들으면 감흥이 더욱 새롭다. 그리고 최근에 알게 된 젊은 피에르 앙타이의 하프 시코드로 연주한 같은 곡에 귀를 모으고 있으면 3백 년 전 예스런 분위기에 젖을 수 있다. 이래서 산중의 겨울밤은 적막하지 않고 넉넉하고 그윽하다.

겨울 자작나무는 이렇듯 우리 가슴에 물기를 돌게 하고 추위를 밀어낸다. 자작나무는 시베리아의 나무로 상징되기도 한다. 영화 ‘닥터 지바고’에서 끝없는 설원에 펼쳐진 자작나무 숲을 우리는 기억한다.

몇 해 전 소로우의 ‘월든’에 들렸다가 그 다음 날 북쪽으로 차를 달려 뉴햄프셔주의 화이트 마운틴에 이르렀다. 거기 온 산에 빽빽이 자란 아름드리 자작나무 숲을 보고 나그네는 크게 놀라고 설렜다. ‘화이트 마운틴’이란 하얀 산이란 뜻인데 산 정상에 사철 눈이 쌓여 있어 그런 이름이 생겼겠지만, 온 산이 허연 자작나무 숲으로 덮여 있어 원주민들이 그렇게 부른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다. 그 앞에 마주 서면 사람이 순수해지는, 겨울 자작나무 이야기로 새해 인사를 전한다.

중앙모임 (02-741-4696)

■ 법정 스님이 남긴 ‘뼈빠용 의자’ 예비문화유산 지정

법정 스님이 남긴 ‘뼈빠용 의자’가 근현대 최초의 예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예비문화유산 제도는 제작된 지 50년이 지나지 않은 근현대문화유산 가운데, 향후 등록문화유산으로서 보존 가치가 높은 유산을 선정해 훼손과 멸실을 방지하기 제도입니다.

국가유산청은 관련 법률에 따라 11월 12일, ‘뼈빠용 의자’를 비롯해 김대중 대통령의 노벨평화상 메달과 증서 등 10건을 예비문화유산으로 최종 지정하였습니다.

‘뼈빠용 의자’는 법정 스님이 1975년 송광사 불일암을 중창한 이듬해, 땔나무를 다듬어 직접 제작한 나무 의자입니다. 검소하고 청빈한 수행정신이 고스란히 담긴 이 의자는, 스님의 삶과 사상, 그리고 ‘무소유’의 철학을 상징하는 유물로 평가받습니다.

스님은 이 의자를 만든 뒤, 영화 ‘뼈빠용’에서 인생을 낭비한 죄로 외딴섬에 갇힌 주인공을 비유해, 스스로 삶을 되돌아본다는 의미로 이름을 지은 것입니다. 이번 지정을 통해 ‘뼈빠용 의자’는 단순한 생활 유물을 넘어, 법정 스님의 사상과 철학을 상징하는 근현대 불교문화의 소중한 유산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습니다.

■ 제1회 법정 스님 학술 세미나 성황리 개최

법정 스님 원적 15주기를 맞아, ‘무소유’의 철학이 현대 사회에서 지니는 의미를 다각도로 조명하고자, ‘제1회 법정스님 학술 세미나’가 지난 10월 19일 길상사 설법전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학술 세미나는 ‘법정스님의 무소유를 말하다’를 주제로, 스님의 사상과 삶을 학문적으로 재조명하는 뜻깊은 자리였습니다. 이날 세미나에는 사부대중 400여 명이 참석하여, ‘무소유’로 대표되는 스님의 가르침을 깊이 탐구하고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첫 시도라는 점에서 매우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습니다. 특히 청빈한 수행자이자 시대의 아픔에 침묵하지 않았던 사회운동가로서의 법정 스님을 종교적 윤리와 사회적 실천의 확장된 시각에서 조명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컸습니다. 이사장 덕조 스님은 “이번 학술 세미나를 계기로, 은사 스님의 ‘무소유’ 정신이 학문과 실천 속에서 더욱 깊이 이어지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학술 연구와 실천 활동을 통해 스님의 뜻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 전자 기부금 영수증 제도 및 연말정산 안내

(사)맑고 향기롭게를 아껴주시고 후원해 주시는 후원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한 해 동안 후원해 주신 소중한 기부금에 대해 연말정산 소득공제용 전자 기부금 영수증 발급 방법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전자 기부금 영수증 제도는 기부자가 종이로 영수증을 받지 않아도,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나 인터넷 발급 시스템을 통해 전자 형태(PDF 등)의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조회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회원님께서 따로 신청하지 않으셔도, (사)맑고 향기롭게는 매년 1월 초에 전년도 기부 내역을 국세청 홈택스로 제출합니다.

● 국세청 홈택스 전자 기부금 영수증 조회 안내

- 조회 가능 시기: 2025년 1월 중순부터
- 확인 경로: 국세청 홈택스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 기부금 항목
* 맑고 향기롭게 홈페이지에서도 조회 및 발급 가능합니다.

● 종이(우편) 기부금 영수증이 필요한 경우

- 인터넷 이용이 어려운 회원님께서는 사무국(02-741-4696) 또는 이메일(clean94@hanmail.net), 또는 홈페이지 1:1 문의를 통해 신청해 주시면 우편, 팩스, 이메일 등 편하신 방법으로 기부금 영수증을 발송해 드립니다.

● 회원 정보 확인 요청

- 기부금 영수증 조회 및 발급 시 ‘성명, 주민등록번호’ 개인정보가 본회 후원시스템에 등록된 내역과 일치해야 정확한 발급이 가능합니다. 변경된 사항이 있거나 익명 후원으로 인해 내역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사무국으로 문의해 주세요.

● 정보 변경 기한

- 발급자 정보를 변경해야 할 경우에는 2026년 1월 7일(수)까지 사무국으로 연락해 주셔야 변경이 가능합니다.

● 기부금 세액공제 기준 안내

- 본회는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종교법인(기부금 코드 41번)으로 등록되어 있어, 납부하신 기부금은 소득금액의 10%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 2026년 탁상달력 우편 발송 안내

(사)맑고 향기롭게는 2025년 10월 말을 기준으로 연간 3만 원 이상 후원해 주신 회원님께 2026년 탁상달력을 12월 3일 우편으로 발송해드립니다. 10월 말까지 후원 내역이 없으시더라도, 11월~12월 말 사이에 3만 원 이상 후원하신 분들께 2026년 1월 중순경 별도로 발송해 드립니다. 우편물 수신을 거부하여 달력을 받지 못하신 분께서는 사무국(02-741-4696)으로 연락주시면 확인 후 발송해 드립니다.

길상사 벽걸이 달력은 12월 14일(길상사 창건 기념법회)부터 종무실에서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벽걸이 달력은 우편 발송이 불가합니다.)

■ 따뜻한 마음이 모여 펼쳐진 연말 김장 나눔

지난 11월 27일(목)에 맑고 향기롭게 회원님들과 길상사 신도, 그리고 자원봉사자분들이 한마음으로 모여 연말 김장 나눔활동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김장 나눔에는 절임배추를 나르고, 양념을 버무리고, 김치를 담그는 모든 손길마다 이웃을 향한 따뜻한 정성이 가득했습니다. 준비된 절임배추

4,000여 포기는 정성스레 버무려 김장김치로 탄생했습니다. 올해 김장 나눔은 홀로 자내시는 어르신,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 돌봄이 필요한 아이들에게 겨울을 견디는 따뜻한 힘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결연을 맺은 460가구에 10kg씩 전달되었습니다. 이와 더불어 노인정과 어린이 방과후교실에도 함께 지원되었습니다.

겨울의 문턱에서, 김장 김치 속에 담긴 따뜻한 마음이 이웃들에게 작지만 큰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 맑고 향기롭게 반찬 나눔 조리 활동

맑고 향기롭게 중앙모임에서는 우리 주변에 홀로 사는 어르신, 장애인, 결손 가정 460여 가구에 매주 목요일에 밑반찬 2가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명절(설날, 추석)과 정월대보름, 부처님오신날에는 생필품을 나누고 연말에는 김장김치를 대상자 가정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오전 9시부터 시작되는 활동으로, 조금 힘든 일도 마다하지 않고 쓱쓱 해주실 수 있는 봉사자의 손길을 기다립니다.

■ 서울노인복지센터 만발식당 급식 자원활동

서울 종로구 안국역 5번 출구에 위치한 '서울노인복지센터'에서는 어르신의 건강한 노년기와 건강한 식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급식 자원봉사자분들과 함께 만발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만발식당은 어르신들의 형편에 따라 무료 또는 4,000원을 부담하는데, 매일 800여 명이 넘는 어르신들께 점심을 제공하고 있으며, 맑고 향기롭게 자원활동팀은 매주 월요일에 참여하고 있으며, 동참하실 분은 오전 10시까지 서울노인복지센터 1층 식당으로 오셔서 맑고 향기롭게 자원활동팀을 찾으시면 됩니다

■ 마음을 맑고 향기롭게

- 소식지 우편 발송 자원 활동 : 3일(수) 오전 10시 세계일화실
- 책 읽기 모임 :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 세계일화실
- 향기 우체부 소모임 : 격주 금요일 오전 10시 세계일화실

■ 세상을 맑고 향기롭게

- 서울노인복지센터 급식 자원 활동 : 매주 월요일 오전 10시 서울노인복지센터 1층 만발식당
- 반찬 나눔 자원 활동 : 매주 목요일 오전 9시 맑고 향기롭게 조리장
- 뜨개질 소모임 : 매주 목요일 오후 1시 세계일화실 / 비대면 활동

■ 연말 재정 후원

- 인도 다람살라 잠양(jamyang) 비구니 스님 학교 후원

 대구 모임 (053-753-8883)

● 자원봉사자 모집

- 어려운 이웃을 위한 반찬 지원활동(조리, 준비, 정리 등) / 매주 수요일 오전 9시~14시

- 청도 운문사 정기 봉사활동 / 쌀 지원 받음 / 매월 셋째 월요일 8시 30분 출발 / 10시~14시 봉사활동 / 16시 30분 도착
- 아나바다 장터, 사무보조 등 자원봉사자 모집(하루 2~3시간 의류 정리, 서류 정리 등)

● 복합문화공간 '함께' 운영(2층)

- 아나바다 장터, 셀프 카페, 셀프 밥상, 공간대여
- 법정 스님 문화관(5층) 상시 운영 / 법정 스님의 발자취를 찾아 떠나는 '무소유 기행'
- 어려운 이웃 반찬, 쌀, 물품 지원 사업(매주 수요일)
 - 홀로어르신, 성폭력·가정폭력 피해자, 저소득 정신장애인, 난치병 환우 가정 지원
- 불교 수행 & 상담 공부 모임(매월 마지막 주 일요일)
- 청소년, 청년 자활 지원 사업 : 심리치료 프로그램, 생활지원금, 셀프 밥상 무료 이용 등 각종 지원
- 어려운 이웃과 환경을 살리는 '녹색장터' 운영 : 새 의류, 물품 기부 요망
- 맑고 향기롭게 회원 가게 이용해 주기 : 어려운 시기 서로 도와가며 극복해요.

 경남 모임 (055-266-0170)

- 보현행원(무료 노인 요양원) : 매월 셋째 수요일 말벗 및 빨래 노력 봉사 / 오전 9시 30분 사무국 출발
- 사파복지회관 무료 급식소 : 매월 넷째 주 화요일과 매주 토요일 점심 준비 및 설거지, 배식 봉사 / 오전 10시~오후 2시
- 해 뜨는 교실(봉림청소년문화의집) : 저소득층 초중등학생 공부방에 학습 지도 및 간식 지원
- 결연 가정 후원 : 월 생활비 지원, 밑반찬 및 김장김치 나누기 / 명절 및 가정의 달 세대 방문 성금 및 생필품 전달
- 장학금 후원 : 결연 세대 청소년 장학금 지원

 광주 모임 (062-236-3129)

- 점심 공양 나눔 : 매주 월요일~금요일 / 고령자, 저소득, 독거 어르신을 대상으로 천 원의 밥상(점심) 운영 / 오전 9시 30분~오후 2시 / 봉사자 및 후원자 모집
- 김치 담그기 : 매주 토요일 진행
- 자비의 도시락 나눔 : 매주 월요일~금요일 / 저소득 가정에 도시락 나눔
- 장터 및 바자회, 쓰레기 줍기 캠페인 : 비정기적으로 회원 및 봉사자들 참여 진행
- 독서, 노래 모임 : 법정 스님 저서 읽고 회원들과 교류



맑고 향기롭게 근본도량 길상사

(02-3672-5945)

추계 관음기도 회향

- 일시 : 12월 3일(수) 오전 9시 50분
- 장소 : 극락전

동안거 결제 및 보름기도

- 일시 : 12월 4일(목) 오전 9시 50분
- 장소 : 극락전

천수다라니 33독 3년 기도

- 일시 : 12월 6일(토) 오후 6시~8시 30분
- 장소 : 극락전
- 개인 축원입니다.
- 공양물(떡, 꽃, 쌀 등) 설판 받습니다.

지장재일

- 일시 : 12월 7일(일) 오전 9시 50분
- 장소 : 지장전

관음재일

- 일시 : 12월 13일(토) 오전 9시 50분
- 장소 : 극락전

길상사 창건 28주년 기념 법회

- 일시 : 12월 14일(일) 오전 9시 50분
- 장소 : 극락전

초하루 기도

- 일시 : 12월 20일(일) 오전 9시 50분
- 장소 : 극락전

동지기도

- 일시 : 12월 22일(월) 오전 9시 50분
- 장소 : 극락전

선명상『하룻밤, 무소유』

도심 속 고요한 숲, 길상사에서 말을 멈추고, 생각을 멈추고 집착을 내려놓고 '진짜 나'를 마주하는 깊은 명상의 시간이 열립니다.
묵언 수행, 108배 명상, 선 명상, 마당 쓸기, 스님과의 차담, 1인 텐트에서의 하룻밤까지.
삶의 속도에서 한 걸음 물러나 비움으로 채워지는 여정 속에서 맑은 고요와 자유를 만나보세요.

12월 20일(토) ~ 12월 21일(일)

12월 27일(토) ~ 12월 28일(일)

● 첫날 15:00 ~ 둘째날 15:00 ●

- 장 소 : 길상사 설법전
- 접 수 : 템플스테이 홈페이지
- 계 좌 : 신한 100-021-136827(길상사)
- 동참금 : 8만원
- 문 의 : 전화 02-3672-5945 / 문자 010-9677-5945

(사)맑고 향기롭게 후원 안내

간편한 CMS 후원 금융결제원의 중개를 통해 후원자님의 계좌에서 후원금을 인출하여 본회로 입금되는 방식으로서 은행을 직접 방문하는 번거로움이 없습니다.

신용카드 후원 나이스페이먼츠 시스템을 통해 후원자님의 신용카드에서 후원금을 인출하여 본회로 입금되는 방식입니다. 홈페이지에서 후원 방법을 신용카드 후원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온라인 자동이체 후원 후원자님이 직접 원하시는 일자에 매월 일정 금액이 본회로 입금되도록 하는 후원 방법으로, 주민등록증, 통장, 도장을 지참하여 직접 은행에서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후원 금액 변동이나 중단 시 신청한 은행에 직접 가야 합니다.

지로 후원 지로용지나 지로 번호를 통해 금융기관에 납부하여 후원하는 방법입니다. (지로 번호 7618372)

일시 후원 뜻깊은 일을 어려운 이웃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경우, 정기적인 후원이 부담되는 경우, 본회 회원은 아니지만 활동에 공감하여 일시적으로 후원하고자 하는 경우, 달달이 소식지를 받아 보는 우편비로 소정의 금액을 후원하고자 할 때, 직접 본회 후원 계좌로 입금하는 방법입니다.

정기 후원 · 회원가입

본회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후원회원 가입 절차에 따라 각 지부를 선택하여 후원 등록하거나, 각 지부 사무국에 방문하여 가입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각 지역 모임 후원 계좌

* 중앙모임 02-741-4696

일반 사업 후원 계좌 : 국민 817-01-0253-129

하나 201-890400-87705

농협 029-01-199412

결식 이웃 후원 계좌 : 국민 817-01-0255-458

신한 100-013-787953

장학금 후원 계좌 : 하나 220-890015-10204

* 대구모임 053-753-8883 후원 계좌 : 대구 002-05-016277-8

* 경남모임 055-266-0170 후원 계좌 : 농협 932-01-002933

* 광주모임 062-236-3129 후원 계좌 : 농협 355-0018-7812-13

(사)맑고 향기롭게는 종교 법인으로 인가되어 후원하신 금액은 연말정산 시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따라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